

## 코로나 19 극복에 헌신한 국군장병 노고 치하

### 정경두 국방장관에 감사... 각 군 및 직할부대 방문, 격려금 전달예정



향군 역대 회장단이 4월22일 국방부를 방문,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헌신한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진호 향군 회장을 비롯하여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이 역대 회장 대표로, 류근무 장군이 역대 부회장 대표로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국방부가 코로나19를 비군사적 위협으로 판단하고 국가적 재난 극복에 군이 앞장서서 선도적 역할을 해 준데 대해 선배로서 고맙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군은 지난 1월말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자 즉각 전문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재난 극복에 적극 나섰으며 4월 20일 까지 연인원 10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

이에 대해 향군회장단은 한결같이 “각 임관한 신임 간호장교로부터 군의관, 육·해·공군 지역부대 장병들이 적극 동참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모습은 진정한 국민의 군대임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마음 든든하다고 말했다.

향군은 김진호 회장 취임이후 국가안보 제2보루로서 현역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국민에 신뢰받는 군대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안보활동 3대 기조’로 삼아 매년 군부대를 찾아 지원활동을 해 왔으며 이번에도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 극복을 위해 앞장섰던 각 군 및 직할부대를 방문하여 격려금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향군은 또 지난해 7월27일에는 한·미동

맹강화를 위해 미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 성금 6억3천만 원을 모아 ‘추모의 벽’ 건립 재단에 전달하고 미 참전용사 및 가족 300여 명을 초청 ‘위로의 밤’ 행사를 주관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3월8일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구 경북지역에 마스크 10만장을 전달하는 한편 향군회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극복 성금을 모금, 1억393만 원을 3월18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기도 했다.

향군은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국가안보의 초석’이라는 판단으로 전국조직을 활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왔으며 정부의 안보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왔다.

## 제13회 대학생 휴전선 답사단원 모집

오는 7월1일부터 6일까지  
6박7일간 휴전선 155마일 횡단

향군은 오는 7월1일부터 6일까지 펼쳐지는 제13회 대학생 휴전선 답사 국토대장정에 참가할 대원들을 모집한다.

대학생들은 6박7일간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을 가로지르며 휴전선 155마일을 횡단한다.

지원 자격은 국내 대학생(휴학생, 탈북자 대학생 포함) 및 해외 유학 대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비용은 무료다.

모든 답사대원에게 모자, 티셔츠, 배낭 등 참가기념품을 지급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은 인터넷(<http://cafe.daum.net/korva-mc>)로 신청하면 된다.

향군은 젊은 세대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대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해 국토대장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휴전선을 답사하면서 총훈탑, 전적비 등 현충시설을 참배하며 후계세대에게 안보관과 역사관 정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군부대도 방문, 병영체험 등을 통해 국방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국군장병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진작시켜 보훈의식을 함양하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향군은 이번 답사를 통해 참가자들이 분단의 현실을 몸으로 체득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가슴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군번만 있으면 누구나 향군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모바일 앱 2020년 1월 3일 OPEN!

향군정회원 간편하게 가입하세요!

온라인가입 바로가기

향군 회원가입

향군 가맹점

각급회 소식

향군 연락처

간편한 정회원가입

향군 가맹점 보기

본부 및 각급회 소식

본부 및 각급회 연락처

← 모바일 바로보기

**정회원 자격 : 군번호소지자 누구나**

-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자
-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정회원 특전**

- 향군 편의시설 할인혜택 (중앙고속관광, 고성통일전망대, 충주호관광선 등)
- 전국 향군 우대가맹점 할인 (10~30%)
- 자녀 장학금/생계보조금 지급
- 국립 현충원/호국원 안장 대상자 안내
- 각종 향군행사 초청 및 참가
- 기타혜택 (복지물 등)

**평생회비 (단 1회만 납부)**

병	부사관·위관	영관
1만원	2만원	5만원

**APP 다운로드 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와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검색 상단에 나오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APP을 클릭하여 설치 후 실행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원 가입문의 : 02)417-5412  
홈페이지 : <http://www.korva.or.kr>

# 이상기 전 이사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 엄벌 요청

## 향군 음해하고 조직 흔드는 세력 더 이상 용납 않을 것



향군은 4월23일 13개 시 도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상기 전 이사 고소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향군은 4월28일 상습적으로 향군을 음해하고 고발을 일삼고 있는 이상기 전 이사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날 향군은 고소장 접수에 앞서 “이상기는 지난 7년 동안 향군 중앙 이사직을 수행한 자로서 이미 2017년 8월 현 36대 회장단이 출범하여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소멸되었음에도 자칭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 호칭을 사용하며 지금까지 향군과 김진호 회장을 무차별 음해하여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상기는 김진호 현 향군회장 취임 후 업무방해 3건, 배임수재 3건, 업무상 배임 3건 등 형사사건 9건과 선거중지, 당선무효 등 민사사건 6건을 포함 총 15건을 검찰과 법원에 순차적으로 고발 및 제소하여 향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상기는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거쳐 ‘혐의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를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정치권 압력으로 무마’ 운운

하며 여론을 확대 재생산 하는데 일관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인 검찰의 처분조차 부정해 왔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향군 이사직을 수행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향군의 내부 정보와 자료를 빼내 의혹을 제기하거나 언론에 제공, 여론을 호도하여 향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상기는 전직 대의원 일부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밴드를 만들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수시로 전송하여 향군 지휘부를 모락 선동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 선출된 현 김진호 향군 회장의 퇴진운동을 공개적으로 벌이는 등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일탈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4월2일 향군상조회 매각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를 바탕으로 졸속매각과 로비 의혹을 주장하며 향군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학소원 장례식장 흔적 지우기, 매각주간사 경력 부족 운운하며 마치 무슨 검은 거래라도 있는 것처럼 막무가내식의 억지 주장으로 시종일관 향군을 음해하고 매도하며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까지 이러한 이상기의 일탈행

위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무 대응으로 일관해 왔으나 이제는 정도가 도를 넘어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어 4월23일 시도회장단 간담회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의했다”며 “앞으로 향군을 음해하고 향군발전을 저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상기의 이러한 일탈행위로 인해 공법단체인 향군이 심각한 명예훼손은 물론 인적 물적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앞으로 더 이상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줄 것을 검찰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 시 도 회장 간담회...주요현안 논의

향군은 4월23일 향군본부 회의실에서 김진호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13개 시도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세계군문화 EXPO 소개 및 향군지원방안 ▶위례 예비역 업무시설 건립 진행사항 ▶주무관청 ‘국방부’ 이관 추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향군 음해의 도를 지나친 이상기 전 이사 고소에 대한 향군의 입장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다.

### ■특별기고

## 한 미 방위비분담 협상, 동맹정신으로 타결하자

금년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확정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금년 3월까지 7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불(60조원)과 한국이 제시하는 지난해 분담금액보다 13% 증액된 금액과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난 4월 1일부터는 주한미군의 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4,0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주한미군 주둔의 60여년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한미 양국 간극 큰 방위비 분담 협상 이견 못 좁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방위비 분담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중 일부에 대한 한국정부의 재정지원을 의미한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분담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부터이다. 1990년대 한국의 국력이 신장하고 반면에 미국의 경제

가 어려워짐에 따라 동맹비용 분담 차원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는 고국을 떠나 한국의 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안정적 생활여건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선의의 발로였다.

그러나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선의는 약해지고 이해의 충돌은 증가하였다. 한국은 주한미군이 제공하는 안보효과 보다 경제적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불만이다.

반면, 미국은 한국이 더 큰 비용부담을 할 능력이 있음에도 적절한 수준의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고 서운해 한다.

오랜 전통적인 한·미 동맹정신에 근거해 왔던 분담금 협상 개념보다 각국이 부담하게 될 금액 자체에 치중하여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동맹정신을 저해할까 우려되고 있다.

방위비 분담 규모는 한국의 재정적 부담능력,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확보, 주한미군의 역할과 작전환경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양국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한국정부는 1991년 1.5억 불을 시작으로 매년 증액되어 왔으며 지난해(2019년)에는 약 9억 불(10조 389억원)을 부담하였다. 이는 미국의회가 밝힌 주한미군 유지비용 약 21억 불의 절반에 해당한다.

한국정부의 부담은 직접적인 재정부담에 그치지 않으며 주한미군의 작전운용상 필요한 부족한 인력(KATUSA 3,000여명)지원, 각종 세제감면, 도로, 철도,항만, 공항, 사격장 및 토지사용 등 광범위한 간접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협상지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 대승적 차원에서 동맹정신 발휘해야

방위비 분담금 대폭증액을 둘러싼 한·미간 협상지연은 한미동맹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 과도한 부담이나 과소부담은 어느 쪽의 입장에서도 동맹관계를 훼손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하원 의원들도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증액요구는 한·미 동맹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있으며, 전례 없이 한꺼번에 다섯 배를 인상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동

맹관계라 하더라도 국익을 우선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양국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적 유행병으로 인해 대공황(1929년)에 필적하는 미증유의 경제·사회적 재앙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어렵겠지만 한국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양국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한·미동맹은 수많은 위기를 동맹정신으로 극복해 온 자랑스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

대승적 차원에서 한·미 양국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지속발전 시켜왔던 한·미 동맹정신을 발휘하여 전통적 양국 동맹관계를 더욱 계승발전 시켜나갈 지혜를 기대한다. 어려울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을 상기하면서....(Friend in need, Friend indeed)



박 세 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원장

향군역사 바로알기 ㉔

# 국내 최고 최대 안보단체 향군의 안보활동

향군은 창설 이후 68년이 흐른 오늘, 전국 조직과 1천만 명의 회원을 가진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로 성장 발전했다. 향군은 국가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안보단체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 왔다.

1960년대 후반 1.21청와대기습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등 북한의 끊임없는 무력도발이 이어지고 또 1969년 닉슨 독트린으로 인한 주한 미군 2만명 철수 등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러한 안보적동기에 향군은 1972년 1월 '자주국방운동본부' 설립 후 시·도회별로 '총력안보본부'를 설치하여 국내 각계각층에 대한 안보강연, 재일동포 안보강연 등을 추진하는 한편 범국민적인 총력안보계몽활동을 전개했다.

## 안보 격동기 60년대 후반 자주국방운동본부 설립 안보계몽활동

그 결과 1977년 1월 취임한 미국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중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에도 향군은 한미동맹 강화활동, 한국전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사업, 북한의 서해도발 규탄대회, 일본의 독도망언 규탄대회, 대통령후보 초청 안보강연회, 6.25전쟁 기념행사, 대학생 휴전선·전적지 답사 국토대장정 등 향군의 정관과 규정에 의거한 안보활동을 통해 국민 안보의식 계도와 국가안보정책을 지원하는 등 국가안보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 왔다.

향군은 2017년 8월 제36대 김진호 회장이 취임 하면서 안보활동에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먼저 그동안 논란이 지속되었던 향군의 정체성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향군의 단체성격(정체성)을 '안보단체'로 규정했다. 이를 대내외에 알리는 정체성 선포식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 최대 안보단체 재향군인회』라는 슬로건과 '향군인의 다짐'을 통해 ▲향군의 일원이라는 '소속감' ▲국가안보의 제2보루라는 '자부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대한 '일체감'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향군은 명실상부한 안보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면서 본연의 안보활동을 위해 '안보활동 기조'를 정립하고 3대 안보활동 중점을 ①북한 실체를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리고 ②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가 육성되도록 하는 것 ③한미동맹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활동으로 정하고 적극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단체 성격에 맞는 본연의 안보활동을 보장하였다.

## 정치적 중립, 안보활동 기조 정립 체계적인 활동 통해 국론결집, 위상제고

따라서 향군의 안보활동은 '국가안보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향군활동 방향과 배치되거나 국가안보에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찬성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으나 향군은 이를 안보활동 기조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향군의 모든 안보활동은 의사결정기구인 '현안 안보점검회의'를 통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입장문, 집회, 성명서, 건의서 등)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차 핵실험 범국민규탄대회, 4.27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환송행사, 9.19군사합의 지지성명, 지소미아(GSOMIA) 연장 권고, 방위비 협상 조속 타결 촉구, 워싱턴 미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성금 모금 및 보은의 밤 행사 개최, 한일갈등 조기해결을 위한 공공외교, 코로나 극복을 위한 마스크 및 성금모금 전달, 코로나 극복 지원 장비 격려 등 안보단체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 최대 안보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향군은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일념 하에 체계적인 안보활동을 통해 국론결집과 위상제고에 힘써 왔다. 다양한 변화 속에 격랑의 시기일수록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안보상황과 시대흐름에 맞는 향군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향군은 앞으로도 좌고 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만을 위한 안보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 안보전망대

### 낭만적 대북 접근법 위험...미-한 이견 좁혀야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고 한국과 대북 접근법을 일치시켜야만 북한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VOA(미국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대해 "현재 심각한 문제는 6자회담 당사자인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분열돼 있는 한 북한이 계락을 꾸밀 공간을 확보한다는 점"이라며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는 한국 문재인 정부와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입장을 맞추고 있고 한국도 미국보다 중국의 입장에 더 가깝다."고 우려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중국과의 조율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북한, 사이버 활동으로 WMD 자금 마련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모든 나라가 행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월8일(현지시간)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는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수익 창출이 포함된다"면서 "책임감 있는 모든 나라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 수행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정찰총국과 해외거점 IT 관련 부서를 통해 사이버 외화벌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8월 1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5년 12월부터 작년 5월까지 최소 17개국의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35차례에 걸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최대 20억 달러(약 2조 4000억 원)를 탈취했다고 밝혔다.

### 방위비 협상, 상호 동의 가능 수준에서 타결돼야

한미 국방부는 4월22일(미국기준 21일) 제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를 열고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 Special Measurement Agreement) 타결을 위한 그간의 공동노력을 평가하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하도록 SMA협상이 공정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타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양측 대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검토하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요소를 고려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응한 군사적 대비태세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방안과 함께 한미동맹을 먼 미래에도 심화시킬 수 있는 협력 방안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의했다.

특히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하게 공조할 것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 낸 **숨은 영웅들**을 국가가 호명(呼名)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무공훈장을 받기로 하였으나 아직 훈장을 받지 못한 56,000여 명의 영웅과 유가족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찾습니다.

**국민 참여 방법**

- ▶ 군번을 알고 있다면 지금 바로 조사단으로 전화하세요.(1661-7625)
- ▶ 군번을 모르시면 먼저 가까운 행정 복지 센터(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병적을 확인하고 군번을 확인해 주세요.

※ 우리 동네 숨은 영웅 찾기에 적극 참여하세요.

**무공 수훈자 혜택** : 영예 수당 지급, 보훈 병원 진료, 국립묘지 안장 등

**상담 문의** :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042-550-7382, 7399)

기간: 2019. 7. 24.~2022. 12. 31.

대한민국육군

Republic of Korea Army



국방단신

### 제52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

국방부는 4월3일 제52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이하여 예비군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부대 및 기관과 개인을 포상하고 모범예비군을 선발하여 격려했다.

육군 제2군단과 제50보병사단을 비롯한 총 24개 군부대와 기관이 예비군육성 우수부대로 선발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예비군 업무 발전에 공이 큰 예비군과 공무원, 군인, 군무원, 민간인 등 총 282명은 대통령표창 등 개인 포상을 받았다. 또한 예비전력 발전과 통합방위를 위해 헌신한 모범예비군 40명도 선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지원센터, 방역현장 등 곳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예비군의 애국심과 헌신을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고 “예비전력 정예화를 국정 과제로 삼고 동원부대 신형장비 등의 전력화,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예비군 훈련의 과학화, 2022년까지 병장봉급 수준을 고려한 훈련보상비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비군의 날 기념식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별도의 기념식 행사를 하지 않았다.

### 부석중 해군참모총장 취임

부석중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사 40기)이 4월10일 해군참모총장에 취임했다.

부석중 제독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2함대 사령관, 해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등의 경력을 두루 거친 해상작전 전문가로서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장을 역임하는 등 연합작전 분야의 전문가로서 현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작전 지휘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아울러 국방개혁 및 전작권 전환 준비를 주도하고 군심을 결집할 역량과 인품을 겸비하고 있어 해군참모총장 책임자로 인정받고 있다.

### 병무청, 제2회 공정병역 UCC 공모전

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정병역 손수제작물(UCC)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전은 공정한 병역, 나라 사랑 등을 주제로 4월13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초·중·고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뉘며, 개인 참여 또는 3명까지 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영상장르는 제한이 없고, 영상 길이는 30초~3분 이하면 된다. 참여방법은 공모전 누리집(www.mma9090.com)을 통해 신청하며 관련 문의는 해당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심사는 병무청 유튜브를(www.youtube.com/user/MMA15889090) 통해 게재된 후 심사위원 평가 등으로 입상여부가 결정된다. 심사결과는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8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대상인 국방부장관상과 병무청장상 등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 국방부, 철원 화살머리고지서 유해발굴 재개

## “남북공동 유해발굴에 북측이 호응하도록 노력할 것

국방부가 4월20일부터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일대 우리 측 지역에서 지뢰 제거 및 유해발굴 작업을 재개했다. 지난해에 이어 진행하는 이번 지뢰 제거·유해 발굴 작업은 ‘9·19 군사합의’ 합의사안인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준비 차원으로 진행됐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제5보병사단장

을 테스크포스(TF)장으로 하고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특수기동지원여단, 제5보병사단 등이 참여해 6·25전쟁 전투기록, 참전용사 증언, 지난해 발굴경험 등을 토대로 유해발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접경지역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며 “앞으로

도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 공동유해 발굴에 북측이 호응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언제라도 남북 공동 유해발굴 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지난해 총 2,030점(잠정 유해 261구)의 유골과 6만7,476점의 유품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국군 전사자 유해 7구에 대한 신원이 확인돼 유해봉안과 안장식을 거행했다.

# ‘코로나 19’ 의료지원 신임 간호장교, 임무완수·복귀

## 간호장교 75명, 2주간 자가격리 후 국군의무학교 입교

졸업과 임관식 직후 코로나 19 의료지원을 위해 국군대구병원 투입됐던 국군 간호사관학교 60기 신임 간호장교 75명이 4월10일부터 5주간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복귀했다.

신임 간호장교들은 그간 1일 3교대 근무를 하면서 경증환자들을 대상으로 면담, 투약 및 복약 안내, 개인위생수칙 교육 임무 등을 수행했고 선배 간호장교들과 함께 산소치료 보조 임무 등 중증환자 치료지원 임무도 병행하며 24시간 밤낮 없이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격려 영상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라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최전선인 국군대구병원으로 달려가 헌신한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다”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국민들께 깊은 감동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고 격려했다.



신임 간호장교들은 4월8일, 코로나19 확진검사(PCR)를 통해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고 2주간 자가격리 후 신임 간호장교 지휘참모과정 교육을 위해 4월27일 국군의무학교에 입교했다.

국군대구병원은 75명의 신임 간호장교들이 철수한 이후에도 300여 명의 군 의료지원단이 헌신적으로 의료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해내고 있다.

### 국민에 신뢰받는 우리의 국군

#### 육군 55사단, 개강 앞둔 7개 대학 방역·소독

육군55사단이 4월6일, 7일부터 1주일간 개강을 앞둔 용인시 소재 7개 대학교에 대한 긴급 방역·소독 작전을 전개했다. 55사단은 6일과 7일 용인대, 명지대 용인캠퍼스, 한국외국어대, 충신대를 시작으로 강남대, 경희대, 단국대 용인캠퍼스 등 각 대학교 캠퍼스에 화생방지원대 K10 제독 차량 2대와 제독 요원들을 투입해 학생회관, 본관, 주차장, 도로 등을 집중적으로 방역했다. 이번 방역 지원은 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용인시의 요청에 따라 시작됐다.

#### 해군1함대 ‘사랑의 헌혈 운동’

해군 1함대사령부는 강릉 혈액원과 함께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적 혈액 공급 비상상황에 도움이 되고자 함대 장병 및 군무

원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지난 2월3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사랑의 헌혈 운동’으로 군 내 헌혈 붐 조성에 앞장선 바 있는 해군1함대사령부는 한 번 헌혈 후 다음 헌혈이 가능한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맞춰 다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전개했다.

장병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는 이웃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컸지만 장병헌혈 인센티브제도도 한몫했다. 장병 헌혈 인센티브제도는 기존의 헌혈 봉사활동 시간 인정 인센티브 외 헌혈을 실시한 병사에게 양호점수 5점을 부여하거나 3회 헌혈 시 1일의 휴가를 주며, 간부에게는 지속 헌혈 시 포상 등을 하는 제도이다.

#### 공군공중전투사령부, 도시락 데이 운영

공군공중전투사령부는 4월9일 ‘공중전투사 사랑의 도시락(樂) 데이’를

운영하고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다. 도시락은 사전에 장병들의 선호 메뉴를 조사해 반영했으며 사무실 각자의 자리에서 식사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했다. 특히 이날 제공된 도시락을 전량 지역 업체에서 구매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 상권에 도움을 줬다.

#### 해병대6여단, 농가 모판작업 지원

해병대6여단이 농번기를 맞아 대민 지원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국민의 부대상을 구현하고 있다. 여단은 4월13일부터 4월30일까지 백령면사무소에 지원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모판작업, 씨 파종 등을 돕고 있다. 여단은 지난달 3일부터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에 있는 주요 다중이용 시설과 어린이집 등에 방역 활동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 ‘보은 실천’, 6.25참전 22개국 마스크 우선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를 6.25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운 참전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공급 대상은 미국 등 22개국이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유엔군 소속(이탈리아는 당시 비회원국) 외국군인 195만7천733명이 참전, 북한군·중공군과 싸우다 3만7천902명이 전사·사망했다.

10만3천460명이 다쳤으며 9천767명이 포로가 되거나 실종됐다.

참전 22개국 중 전투지원국은 16개국, 의료지원국은 6개국이다. 전투지원국 중 미국이 최대 규모인

178만9천명을 파견했고 영국이 5만6천명, 캐나다가 2만6천791명, 터키가 2만1천212명, 호주가 1만7천164명을 파병했다.

필리핀(7천420명), 태국(6천326명), 네덜란드(5천322명), 콜롬비아(5천100명), 그리스(4천992명), 뉴질랜드(3천794명), 에티오피아(3천518명), 벨기에(3천498명), 프랑스(3천421명), 남아프리카공화국(826명), 룩셈부르크(100명)도 전투병을 보냈다.

의료지원국 중 가장 많은 인원을 보낸 나라는 스웨덴(1천124명)이다.

스웨덴 야전병원단은 1950년 9월부터 1957년 4월 철수할 때까지 6년6개월 동안 지원하는 등 6·25

전쟁에 파견된 의료지원부대 중 가장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머물며 중환자를 치료했다.

이어 덴마크(630명), 인도(627명), 노르웨이(623명), 이탈리아(128명), 독일(117명) 등이 의료인력을 보냈다.

참전국 중 코로나19로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본 나라는 미국이다.

21일 현재 미국에서 4만2천604명이 코로나19에 걸려 숨졌다.

이어 이탈리아가 2만4천114명, 프랑스 2만265명, 영국이 1만6천509명, 벨기에가 5천828명 사망했다. 독일이 4천862명, 네덜란드가 3천751명, 터키가 2천140명, 캐나다 1천690명, 스웨덴이 1천580명 숨졌다.

## 구직활동 제대군인 매월 최대 50만원 지원

### 5년~19년6개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대상, 전직지원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실업상태 군인연금 비대상자 중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동안 복무한 중·장기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취·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전직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5년~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 복무 군인 중 전역 후 6개월 이내의 실업상태인 군인연금 비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

책으로 5년 이상~10년 미만 복무한 중기복무 군인에게는 매달 25만 원, 10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장기복무 군인에게는 매달 50만 원 최장 6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만일 수급 기간 중 취·창업 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2분의 1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전국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정부전자민원 홈페이지(정부24 또는 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초기 상담을 받고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실 조사 및 심사→서비스 보장→서비스 제공’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미국 6·25참전용사인故 보이드 왓츠(Boyd Watts, 만 88세)씨의 안장식이 4월7일 부산 남구 소재 유엔 기념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안장식은 6·25전쟁 제7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첫 유엔 참전용사 안장식으로 미망인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사령부 의장대가 함께 경건하게 진행됐으며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권율정 부산지방보훈청장과 미국정부를 대표하는 다니엘 게닥트(Daniel C. Gedacht) 주 부산 미국영사관 선임영사, 유

엔사령부를 대표하여 햄자 로지(Hamzah Lodge) 주한 미 해군사령부 의전 장교가 참석해 고인을 기렸다.

다니엘 게닥트 선임영사는 추모사를 통해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유해 안장 후 참석한 각 대표가 국화꽃을 헌화하며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보이드 왓츠는 18세의 나이로 6·25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0년 12월부터 1952년 1월까지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했다.

## 미 참전용사 보이드 왓츠, 대한민국서 영면

### 1950년 12월부터 1952년 1월까지 참전, 자유수호

## 제101주년 임정수립 기념식...기념관 기공식도



국가보훈처는 4월11일 서대문독립공원 어울침터에서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임시정부기념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새로운 백년, 희망을 짓다’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정부 주요인사, 독립유공자 유족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문형무소와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현장이 마주보이는 뜻 깊은 장소에서 임시정부 기념관 기공식과 함께 의미있게 개최됐다.

기념식은 대한민국임시헌장 낭독, 기념사, 임시정부기념관 기공선포, 기념곡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임정 기념관을 국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짓는다는 의미로 참석자 모두 카운트다운과 함께 기공식 선포를 알렸다.

## 가평군, 영연방 한국전 참전행사 하반기로 연기

경기 가평군은 4월21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의 6·25 전쟁 참전 기념행사를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매년 4월20일을 전후해 국가보훈처와 함께 영연방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초청해 가평전투 참전 기념행사를 열어 왔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를 우려해 기념행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가평전투는 1951년 4월23일부터 25일까지 영국 미들세스 대대, 호주 왕실 3대대, 캐나다

프린세스 패트리샤 2대대, 뉴질랜드 16포병연대 등으로 이뤄진 영연방 제27여단 장병들은 5배가 넘는 중공군의 공세에 맞서 방어선을 지킨 전투다.

영연방 장병들이 격전을 벌이는 동안 국군과 유엔군은 인근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구축했으며 이 같은 공로로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부대 훈장을 받았다. 호주 왕실 3대대는 지금까지 ‘가평대대’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캐나다 프린세스 패트리샤 2대대는 막사를 ‘가평 막사’로 부르고 있다.

## 6·25전쟁 70주년, 서울 현충원 콘텐츠 공모

국립서울현충원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5월18일까지 대국민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한다.

‘6·25전쟁 70주년, 현충원에 잠든 영웅들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웹툰’과 ‘손글씨 슬로건’ 부문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6·25전쟁으로 서울 현충원에 안장되신 13만여 호국영령을 기억하며 감사함을 표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았다.

웹툰 부문은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신 분들의 영웅담을 소재로 10컷 이상의 작품으로 제출하면 되고 손글씨 슬로건 부

문은 6·25전쟁이 연상되는 문구를 손글씨 작품으로 제출하면 된다.

작품 규격과 접수방법 등 공모전 관련 자세한 정보는 공모전 공식 누리집(www.snmbcontest.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총 상금은 1,525만 원으로, 대상 1팀 등 선정된 총 47개 팀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함께 수여된다.

국립서울현충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많은 국민이 나라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수상작들을 전시하고 공식 누리집과 SNS를 통해서도 동시에 홍보할 예정이다.

# 대전 충남 향군여성회, 밑반찬 나눔 봉사

## 11년째 봉사,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활동 병행



대전·충남 향군 여성회(회장 양갑숙)는 대전지방보훈청과 함께 보훈가족 58가구를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은 향군 여성회원들이 직접 반찬을 만들어 방문 전달하는 봉사 활동으로 올해로 11년째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취약하고 평소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보훈가족에게 코로나19 생활 예방수칙과 함께 밑반찬을 전달, 감염예방활동과 병행해 실시했다.

양갑숙 회장은 “국가와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다 홀로 지내시는 보훈가족 분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충남재향군인회 여성회는 매년 보훈가족 가사 돕기, 대전 현충원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 의 모범이 되고 있다.

# 진주시 향군, 안보강연...읍면동 회장 회의도

## 코로나19 위기극복 동참, 임대료 20% 인하



진주시 향군(회장 최신용)은 4월14일 갑을가든 2층 회의실에서 ‘대내외 고난 극복 및 북한 현실을 주제로 한 안보강연을 갖고 임직원들의 안보의식을 고양했다.

읍 면 동 회장 회의도 병행하여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신임 임원 소개와 함께 향군회관에 입주한 3개소에 대한 4-5월 임대료 20% 인하가 결정됐다.

이어 정형호 안보강사는 강연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요즘 향군 회원들이 단결하여 이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최신용 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이 시기에 이를 슬기롭게 이겨나가자”며 “회원 상호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친목 도모는 물론 지역에서 역할을 다하는 향군이 되자”고 강조했다.

### ◆우수회 탐방 / 충남 태안군 향군

# 안보의식 고취, 향군이 주민 속에 자리잡는 길

## 해안안보단체연합회 구성, 다양한 안보계도 활동 펼쳐 지자체와 유대강화, 회관 증축...재정 자립기반 마련

충청남도 태안군은 예로부터 북한의 도발이 많았던 안보취약지역 서해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 태안군에서 안보 제2보루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태안군 향군은 회무의 최 우선 과제를 안보의식 함양에 두고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활동을 운영방식으로 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후계세대의 올바른 안보의식 고양을 위해 관내 중 고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안보현장 교육을 활성화시켜 세대를 아우르는 안보체험 행사를 통해 분단현실을 직시하고 안보수호 소명의식 함양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 후계세대 안보의식 함양 부모님과 함께하는 안보현장 교육

아울러 2012년 6.25참전유공자회, 무공수훈자회, 자유총연맹 등 지역 8개 안보보훈단체, 4개 사회단체와 함께 해안안보단체연합회를 출범시켰다.

향군회장이 중심이 되어 지역 내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안보사안에 대한 신속 공동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출범한 해안안보단체연합회는 그간 천안함 폭침 추모, 서해수호의 날 결의대회 등 대북규탄행사를 비롯하여 통진당 해산추구 등 이적세력의 처벌도 요구하며 범 국민적인 안보 공감대 형성에 노력했다.

여기에 더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활발한 봉사활동을 통해 군내에서의 위상도 높다. 10여년 전 태안을 강타한 시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건, 전 해안이 기름으로 오염되어 청정해역이 죽음의 바다로 변해 회복이 불가능한 듯 보였다. 모두가 망연자실할 때 주민들을 일으켜 희망을 불어넣은 것도 태안군 향군이였다. 급기야 본부를 비롯한 향군 전국 조직이 도움을 보내 빠른 시일 내 해안을 복구시키는 데 큰 힘을 보탤었다.

그리고 이렇게 살린 바다를 지키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10곳 가까운 태안지역 해수욕장 중 3곳에서 여름 휴가철 안전요원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수중스쿠버 등 해양스포츠 자격증을 보유한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환경정화활동까지 전개해 지역의 파수꾼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지역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위상 제고, 주민사랑 한 몸에 받는 모범단체

뿐만 아니다. 요양보호시설 봉사,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환경보호활동 등 평범하지만 꼭 필요한 지역 현안 활동에도 빠짐이 없다. 한마디로 지역의 감초로, 안보지킴이로 군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모범적인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태안군 향군은 지난 2010년 지자체 보조금 8천만 원을 포함, 1억여 원의 예산으로 회관을 증축했다. 증축 후 회 사무실을 3층 공간으로 옮겼으며, 사무실이 있던 2층 공간에는 태안군청과 임대계약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가 입



주했고 1층에는 식당이 자리잡았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획득, 그리고 이들과의 임대계약은 안정된 임대수익 확보는 물론 향군위상 제고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태안군 향군 임직원들은 물심양면으로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았고 결국 이를 이루어 내 재정자립기반을 마련을 통한 회무 안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더해 향우산업 법인 지사 등록 등을 통해 다각적인 수익모델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태안군 향군은 위기극복을 위한 각급회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회 운영으로 지역사회의 중추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회원복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병원, 식당 등 다양한 업종과 향군 가맹점 협약을 추진, 향군에 대한 자부심고취와 단합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는 모범적인 조직이다.



정부(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월27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행사를 축소하여 전사자 유가족, 참전 장병과 정부 주요인사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날처럼,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행사가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정부에서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정해 범국민적으로 북한군의 도발에 맞서 싸우다 소중한 목숨을 바친 호국 영웅을 추모하는 기념일로 정해 행사를 한다는 점이다.

서해상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우리 장병들이 매우 많다.

먼저 1999년 6월15일 제1연평해전 그리고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에서 북한군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우리 해군의 참수리-357정과 6명의 해군전사의 생명을 빼앗았다. 또 2010년 3월26일 서해 백령도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하던

■제언

# 흔들림 없는 안보활동 전개해 나가야

천안함을 공격해 꽃다운 해군 용사 46+1명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으며 같은 해 11월23일에는 연평도의 민간인 마을에 포격을 가해 2명의 해병 용사가 목숨을 잃었다. 서해에서 4차례에 걸친 도발로 우리 장병 55명이 희생된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동족상잔의 비극 6.25전쟁 이래 휴전 이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대남도발을 저질러 왔다. 3천여 회에 이른다.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은 코로나19사태로 방역에 정신없는 비상사국에 우리를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을 수차례에 걸쳐 발사했다. 이러한 군사행위는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행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보훈처가 '서해수호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정한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다.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친 진정한 영웅들에 대해 국민적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곧 자연스러운 안보교육이기 때문이다.

대전·충남 향군은 매년 안보취약계층인 여성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안보강연회 개최와 안보현장견학을 통하여 지역민의 안보의지를 다지고 있다. 올해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경기도 파주일대인 임진각과 도라전망대, 제3땅굴 등의 견학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시 도회 및 시 군 구 회관에 4차례에 걸친 서해에서의 도발로 희생당한 55명의 장병들을 추모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그들의

호국의지를 기렸다. 향후 코로나 19 확산 추세가 진정되면 국민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추모 사진전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치르진 서해수호의 날 행사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크다.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로 자리매김하며 안보 제2보루를 자임하는 재향군인회는 안보활동 기조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안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제5회 서해수호의 날이 주는 메시지가 국민의 소망과 함께 굳건한 안보태세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박재운  
대전 충남 재향군인회장

## 코로나19 어려움 처한 한인 유학생 지원

### 워킹홀리데이 청년 포함 동포 구호활동도



향군 호주지회(회장 방승일)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호주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유학생과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임원들이 후원금 20,500달러를 마련, 이들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향군 호주지회는 유학생과 워킹홀리데이 체류 청년들에게 컵라면 200박스,

육류 100킬로그램, 한인식당 4개소 음식 제공 등을 지원했다.

아울러 시드니와 캔버라 한인사회 단체들과 함께 코로나19 한인동포사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동포들과 취약 계층 등에게도 음식을 제공하는 '따뜻한 한 끼 식사' 캠페인을 벌였다.

## 가평전투 전승 기념식, 참전용사 위훈 기려



캐나다 서부 향군(손상열 회장)이 4월20일 향군 임직원들과 6.25참전유공자회 이우석 회장 등 참전용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캐나다 Doubleday Arboretum Langley 공원의 가평석 기념탑에서 가평전투승전기념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 재향군인회! **Daum 카페** 카페이름 \* 향군 국토대장정

**평화로 가는 길, 우리가 갈다!!**

6·25전쟁 70주년(제13회)

# 대학생 휴전선 답사 국토대장정

**대상:** 국내외 남·여 대학생 100명

**참가비:** 전액 주최측 지원

**답사기간:** 2020년 7월 1일 ~ 7월 7일(6박 7일)

**접수방법:** 인터넷(<http://cafe.daum.net/korva-mc>)

**주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후원:** 국가보훈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홍보원

**문의:** 02) 416-6456 (향군 호국안보국)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각급회 소식 이웃에 봉사하고 안보 계도에 팔 걷어... 향군 각급회 활동

(3월21일 ~ 4월20일)

## 서울시 향군



**서울시회** : 4월2일, 9일 향군과 보훈안보단체 지원을 위한 마스크 6,000매를 전달하기 위해 향군을 방문한 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을 맞아 마스크 전달식 거행.



**노원구회** : 3월24일 노원보훈회관을 방문, 참전 보훈단체 회원들을 위로하고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 전달.

**성북구회** : 4월16일 코로나19 시국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노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향군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향군회관을 방문한 임태근 성북구의회 의장과 간담회 가저.

## 부산시 향군

**부산진구회** : 3월30일 코로나19 예방대책으로 방역홍보활동 및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 안내 봉사활동 전개.

## 대구시 향군



**대구시회** : 3월31일 향군 발전에 기여한 이대영 서구회 사무국장 정년 퇴임식 행사를 갖고 노고 격려.코로나 19로 인한 임차인들의 고통을 듣기 위해 연합치과 등 6개 입주업체 4월분 임대료 30%~50% 차등 인하.



**동구회** : 4월 5일 동구 봉무동에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나리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구매운동 실시.

**수성구회**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회원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온라인 안보교육 실시.

**달서구회** : 여성회는 4월10일 성서 노인 복지회관에서 반찬 봉사활동 실시.

**달성군회** : 4월14일 갤러리 안경점과 향군 할인가맹점 협약식을 체결, 회원 복지 증진.

## 인천시 향군

**남동구회** :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코로나 19 피해극복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 동회장 협업체를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방역작업을 실시.



**연수구회** :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작업 실시.

## 경기도 향군



**여주시회** : 3월25일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여주시청, 여주시외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봉사.



**시흥시회** : 청년단은 4월7일 취약계층과 경로당 어른신들 및 사회단체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마스크 5000매를 시흥시청에 전달.

**수원시회** : 권선동회는 3월30일 권선구청과 권선1동 주민센터를 방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30만원과 20만원을 각각 전달.

## 충청북도 향군

**영동군회** : 4월14일 영동군청을 찾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회원들의 정성으로 십시일반 마련한 성금 100만원 전달.

## 대전 충남 향군



**대전 동구회** : 4월10일 동구청을 방문,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기탁.



**보령시회** : 4월6일 보령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돌봄 어르신 반찬봉사물품에 써 달라고 농산물 전달. 4월14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실직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정부 주관 행사 봉사활동.



**서산시회** : 3월2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 200만원을 서산시에 기탁.

## 전라북도 향군



**순창군회** : 4월6일 순창군 예비군 읍대장

실에서 예비군의 날을 맞아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안보계도활동을 전개해 온 공로로 제35보병사단장 표창 받아.



**남원시회** : 여성회는 3월24일 금지면, 4월16일 사매면 방울토마토 농장에서 부족한 농촌 일손 돕기 봉사 전개.

**진안군회** : 3월30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제작 현장을 찾아 간식 제공하며 자원봉사자들의 노고 격려.

**정읍시회** : 3월31일 상교동 예비군중대를 방문, 향군을 소개하고 정회원 및 코나스넷 가입 홍보.

**전주시회** : 4월7일, 16일 완산구 예비군 지역대, 덕진구 예비군 지역대를 각각 방문, 향군활동을 소개하고 정회원 가입 등 현안 업무 논의.

**고창군회** : 4월1일, 3일, 10일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고창읍 석정재가복지센터 및 노인회관, 부안면 야고바의 집 및 신림면 장애인 집 등 복지시설에서 방역활동 실시.

**임실군회** : 4월1일 임실군 자원봉사센터를 찾아 감염예방을 위한 코로나19 마스크 제작 봉사자들을 위문.

**김제시회** : 4월17일 회원복지 향상 및 위생 제고를 위해 관내 음식점 등 10개 업소를 선정, 할인가맹점 협약 체결.

## 광주 전남 향군



**광주 전남도회** : 4월1일 안보회관에서 신인 김재홍 서구회 사무국장에 대한 임용장 수여 및 직무교육 실시.



**강진군회** : 3월24일 10시 강진군청에서 군수 주관 하에 열린 코로나19 감염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유관기관 협조회의의 참석.

**영암군회** : 4월6일 민주 평통, 자유총연

맹과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라이온스클럽 회관에서 사랑의 헌혈운동.

### 경상북도 향군



**경북도회** : 3월31일 코로나 19사태로 비상근무중인 경상북도 재난대책본부를 방문, 참의 20박스(140만원 상당)를 전달하고 근무자들을 격려.

**경산시회** : 4월2일 코로나19 의료진들을 위한 경산시민 1인 1족 흰 양말 모으기 동참하여 경산시자원봉사센터에 흰 양말 200켤레 전달.



**포항시회** : 청년단은 3월28일 포항성모병원 인근 주택단지 일대에서, 4월4일 포항대 교내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방역 봉사활동 전개. 중앙동회는 4월17일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 코로나 예방을 위한 면 마스크 1천매 전달.



**구미시회** : 4월1일 보훈 안보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코로나19 긴급 생활비지원을 위한 구미시의 예산조성에 동참하기로 하고 해외안보문화체험 사업비 1천8백만원 반납.



**문경시회** : 4월20일 지역의 호국영웅인 김용배 장군의 업적을 홍보하기위해 문경읍 하리에 소재한 용배공원에 안내판 설치.

### 경남 울산 향군

**통영시회** : 3월31일 통영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 방역소독과 캠페인에 참여.

**양산시회** : 3월23, 24일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웅상 사회복지관, 양산시 노인복지회관, 중증장애인시설 늘푸른 집에

손소독제 및 마스크 등 전달.



**밀양시회** : 4월2일 상남면 그린동화 업체에서 공적마스크 포장 봉사활동 실시. 4월3일 영남루앞~북성사거리~내일동 중앙동 및 상가지역에서 밀양시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방역활동에 동참, 방역활동 및 손소독제 및 물티슈 나눔 행사 가져.



**거제시회** : 3월26일 거제시청과 선별 진료소, 거봉 백병원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의료진 격려.



**의령군회** : 여성회는 4월13일 6.25참전용사 및 불우회원 가정을 방문, 마스크 및 위문품 전달.

**하동군회** : 4월16일 향군회관에서 소방 안전 교육 및 시설점검 실시.



**창원 진해구회** : 여성회는 3월25일 창원시 여성회관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 대체식품과 과일 전달.

**울산 울주군회** : 옹촌면회는 4월6일 복지센터에서 공적 마스크 나눔 봉사활동 실시.

###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3월30일 시회장단과 간담회, 4월8일 신임 여성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업무현안 토의 및 안보정세 분석.

## 회원의 목소리 예비군 창설 52주년을 맞아

# 예비군 정예화는 선택 아닌 필수

4월3일은 '예비군의 날'이다. 예비군은 1962년 북한의 '전인민의 군사화' 등 4대 군사노선에 대응하고 1968년 1월21일 북한의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1월23일 미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10월의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을 계기로 후방지역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창설됐다.

예비군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해 대비하고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 무장 소요가 있거나 소요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 대처할 수 없는 경우), 중요시설·무기고와 병참선 경비 임무를 맡는다. 예비군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미국은 87만여 명의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전력이 유사시 현역으로 전환되거나 현역 임무를 수행해 미국 군사력 운용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독일은 상비군은 25만 명 수준이지만 44만3천여 명의 예비군이 철저히 전시에 대비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현역은 소규모로 유지하되 46만 명 규모의 예비군을 주 전력으로 삼아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주변 국가들에 맞서 최강의 전투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북한은 128만 명의 정규군 외에 붉은 청년근위대교도대(15~16세의 고등중학교 5~6학년 남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선인민군의 준군사조직)와 노동적위군(17~60세의 남성 및 17~30세의 미혼 여성 중 현역군과 교도대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된 예비전력) 등 770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을 운용하고 있다.

310만 명의 우리 예비군은 전시 초기에 이런 북한 예비군과 맞서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선 예비군제도 폐지와 예비군 훈련 기간 단축 얘기가 끊임 없이 나오고 있다.

2017년 청주지법은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우리 군의 병력 감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전력 강화는 전력 공백을 위해 필수적이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 우리 군 상비병력은 현 62만여 명에서 52만명이 된다. 그 중 육군은 48만3천에서 36만5천 명으로 줄게 된다. 게다가 18개월로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금년부터 대체복무가 시작되면 향후 군사력 운용에 큰 과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군은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제도개선은 미비한 실정이다.

국방비에서 예비전력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325억, 지난해엔 1703억 원으로 전체 국방예산의 0.3%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2067억원으로 0.41%였다.

국방부는 2023년까지 4500명 가량의

'비상근 간부예비군'을 확보하기로 했지만 작년 10월 기준 목표 달성률은 22.5%(1023명) 수준이고, 2023년까지 40개를 창설하기로 한 '과학화 예비군훈련대' 역시 5개에 불과했다.

또한 북한이 배후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면서 2016년 정부는 사이버 침대응(CERT)팀과 사이버 분야 의경 등 군과 경찰에서 사이버 분야에서 복무하다 전역한 예비역을 사이버예비군으로 편성하는 사이버예비군 창설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이 계획도 무산됐다.

2018년 국방부는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10여일 앞두고 전격 중지했다. 관련 법령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였다.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은 북한군의 상비병력 128만 수준에 비해 우리 군이 2022년까지 52만2000명 수준으로 감축하면 발생할 전투력 공백을 우려해 계획됐다. 당시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두고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동족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책동에만 피눈이 된다면 그것이 초래할 후과가 어떨겠는가 한데 대해 심사숙고 해야 한다"며 맹비난했다.

북한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3월 한달 간 '9·19군사합의'와 '판문점 선언'이 무색하게 동해상으로 4번의 초대형 방사포와 탄도미사일 등 신형 무기를 쏘아대며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스스로 '핵보유국'을 자처한 북한은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을 바닷속에서 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와 미국 서부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춘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310만명 예비군의 전력 강화가 중요한 이유는 전시 상황에서 예비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평시에 훈련받지 않은 예비군은 전시에 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해외 국가와 비교해 우리 예비군의 훈련기간은 매우 짧다.

호주는 7~50일, 미국은 15~39일, 이스라엘은 54~84일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이 발간한 '합의형성 관점에서 본 예비군 훈련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군 내부에서는 예비군 전력 강화를 위해 최소 훈련기간이 '4박 5일'은 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훈련의 질과 수준도 보다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비전력 강화는 병력 감축에 대비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예비군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하기 위해선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전시상황에 대비한 치장물자와 개인장비 지급, 예비군 훈련 강화 등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은 의무만 강조하는 시대가 아니다.

52주년을 맞는 올해 예비군의 날은 예비전력이 한층 격상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경선 인터넷 안보부 차장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표직영사업체

종합사업본부는 물류유통, 광고마케팅, 목재가구, 군장품, 환경관리, 신재생에너지 등 10개의 사업단을 두고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또한 계속적으로 수익 창출을 위한 신사업개발에 전력하고 있다.

종합사업본부는 수익계약 폐지에 따른 사업환경의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최근 온·오프라인 유통사업에 역점을 두고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보건환경, 위생·건강용품 판매

최근 코로나19사태와 관련, 향군 회원들에게 **유통마진 없는 합리적 가격**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보건용품 판매 개시



### 일회용 덴탈마스크

- \* 인증 : CE, FDA
- 안전한 3중 필터
- 넉넉한 공간확보
- 보다 편안한 호흡 가능



### 손소독제

- \* 인증 : 식약처 허가
- 99.9% 바이러스 살균효과
- 세균, 곰팡이 제거
- 피부에 안전한 저자극성
- 제조사 : 대경제약

※ 이외 서지컬 마스크, KF94마스크, 살균스프레이 등 판매 ※ 본 제품의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고품질 최저가격 재향군인회복지몰 네이버 최저가보다 싸입니다!

### 재향군인회 복지몰 이용 방법



korva.ezweel.com 에 접속 → 회원가입  
→ 본인 인증 및 개인정보 입력 → 가입 완료 후 로그인



스토어에서 "모바일 복지관" 검색 후 다운로드  
→ 회사명 : 대한민국재향군인회(KORVA)입력 → 로그인

※ 회원가입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우수제품 입점 신청 접수중 -

## 신규 판매 제품



### 향군마크 기념시계

- 남/여 손목시계
- 고급 시계 맞춤형 주문제작
- 실크 인쇄 제작
- 제품 케이스 제공
- 최저 수량에도 주문 가능

전화 한 통으로 OK!



근조 3단 화환

~~130,000원~~ → 78,000원

축하 3단 화환

~~100,000원~~ → 59,000원

※수익금은 보훈성금 조성에 사용됩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종합사업본부) | 전화) 02-3679-7070  
**코 바 플 라 워** | 팩스) 02-3679-7071

종합사업본부는 오직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익금 전액을 보훈성금으로 납부합니다.

제품 구매 문의 종합사업본부 사업부

전화 02-417-1022 | 팩시밀리 02-425-0541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종합사업본부

6·25전쟁 70주년 특별기획

6·25전쟁 전승기념관을 찾아

# 국군 6사단 치열한 방어전 기념, 춘천지구 전투 의의 조명

## 개전 직후 방어전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전투...유엔군 참전 시간 벌여

###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전쟁기념관으로 한국전쟁 때 국군 6사단이 치열한 방어전을 펼쳤던 춘천지구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다. 1978년 11월 15일 개관하였으며 한국자유총연맹이 관리를 맡고 있다.

3개의 전적기념관 전시실에는 한국전쟁 발발 배경에서부터 춘천지구 전투의 전 과정을 사실적, 역사적으로 재조명하여 춘천지구 전투의 역사적 의의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6.25전쟁 전반에 관한 실증자료들이 당시 전투 모습을 재현한 모형·장비·무기류·유품·사진·각종 자료가, 기념관 앞에는 탱크·전투기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또 치열한 방어전을 펼쳤던 국군 6사단의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전적비도 있다.

춘천지구전적기념관은 의암호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에 조각공원·에티오피아 참전기념비·보트장·정조대왕 도하주교 등이 있다.



### ※ 춘천지구 전투

춘천 지구에 배치된 6사단 7연대는 SU-76 자주포부대를 앞세우고 침입한 적 2사단을 춘천의 북쪽 관문인 소양강교를 중심으로 소양강방어선을 구축하고 굳세게 막았다. 대전차포중대의 소대장인 심일소위가 대전차포와 육탄 공격으로 적 자주포를 파괴한 것도 바로 이 때였다. 흥천

지구에 배치된 6사단 2연대도 자주포부대와 T-34 전차를 선두로 침입한 적 12사단을 막아 싸웠다. 흥천 북쪽 말고개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특공대를 편성해 적 자주포와 전차를 파괴하며 효과적인 지연전을 수행한 것이다. 춘천·흥천지구의 방어전은 서울에 북한군이 진입한 6월 28일까지도 성공적으로 지속됐다. 그러다가 육본의 지시로 부대 편제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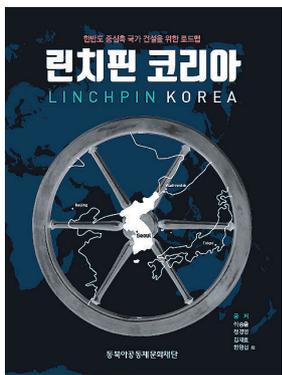


한 채 28일 오후부터 원주 방면으로 후퇴했다. 적의 파상적인 공격을 막아내며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춘천·흥천 지구 전투는 6·25전쟁 개전 직후 아군이 방어전에서 승리한 유일한 전투였다. 이로써 북한군의 기습 공격 전략에 일대 타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아군의 주력이 한강방어선을 형성하고,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여준 매우 귀중한 승전이었다.

### ● 화제의 책

한반도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로드맵

## ‘린치핀 코리아’



린치핀(Linchpin)은 수레나 자동차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고정하는 핀으로 구심적 역할을 일컫는다. 이 책의 제목 ‘린치핀 코리아’는 대한민국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는 것을 의미한다.

‘린치핀 코리아’는 이승률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이사장, 정강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각계 전문가 14명이 저술에 참여해 한반도 중심축 통일국가를 위해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린치핀 코리아’를 위한 △한미동맹과 다자안보 병행 △북핵 폐기 추진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한반도 물류 중심축 경제발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법체계 정비 △갈등구조 해소와 통일교육 등 6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발간>



### 건강정보

## 위암,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정도 높게 발생

###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 중요, 조기 발견하면 완치 가능

#### 증상

위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뒤늦게 진단이 되며 다른 소화기 질환과 감별이 어렵다. 조기 위암의 경우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진행성 위암의 경우 암이 진행함에 따라 상복부 불쾌감, 팽만감, 복통, 소화 불량, 체중감소, 빈혈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후기 위암으로 진행되면 구토, 토혈, 혈변, 연하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원인

위암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관련인자로는 위수술의 과거력, 만성 위축성 위염 및 장상피화생,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있다. 식이요인으로는 질산염 화합물(식품처리제, 염장식품, 가공육류, 훈제식품), 짠음식, 탄음식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위암은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위험도가 약 2배로 증가되며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정도 높게 발생하고 50대 이후에서 호발된다. 또한 다른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음주 및 흡연은 잘 알려진 발암 원인이다.

#### 진단·검사

위암은 증상과 진찰만으로 진단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상부위장관촬영술이나 위

내시경 검사로 위암을 진단 할 수 있다. 위내시경검사의 경우 조직검사가 가능하여 조직검사 결과 암세포를 발견하면 최종 확진할 수 있다. 암이 진단되면 컴퓨터단층촬영술(CT)등과 같은 추가 영상 검사를 시행하여 암이 주변 장기로 침범하였는지, 림프절 또는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치료방법

위암으로 진단이 되면 치료의 방침과 완치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준이 되는 암의 병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암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국소적 치료와 전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다. 국소적 치료로 대표적인 것은 개복 수술이며 일부 위암의 경우 삶의 질을 고려하여 내시경 점막 절제술, 복강경 위절제술, 로봇 위절제술 등의 치료 방법이 있다. 방사선치료는 적절히 시행된 수술에 비해 좋은 성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

전신적 치료로 대표적인 것은 항암화학요법이다.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에 시행하며 근치적 위절제술 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잔류암을 치료하기 위해 보조적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할 수 있다.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재향군인신문 발행인 김진호 편집인 안찬희  
인쇄인 배성한 간 별 월 간

2019년 4월 1일 등록번호 서초, 라 11768호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서초동, 1365-16)  
전화 (02)416-0923 팩스 (02)417-5416

외부필진의 기고문 및 광고내용은  
향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향군장학기금

※ 기간 : '20년 3월 25일 ~ '20년 4월 23일  
※ 단위 : 기부구좌(기부누계), 1구좌 1만원

#### ▶ 개인

- 향군장학재단 이사장 이규환 500(500)
- 향우산업 대표이사 허재수 10(230)
- 경기도 부천시재향군인회 심곡동회 회장 조상익 3(22)

#### ▶ 정기기부

- 前 홍보실장 이정호 1(267)
- 권율부대 강모아 1(57)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417-5887)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도  
기부현황을 게시하였습니다.

####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금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 안보정세보고

##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 협상

제11차 한미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pecial Measure Agreement: SMA)을 위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7차 협상이 두 달여 지체되다가 3월 17~19일 미국에서 열렸지만, 여전히 양측의 견해차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그러다가 3월 31일 갑자기 협상 타결 가능성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 의해 유보되어 기대를 높였으나 4월 2일 미 정부가 공식 부인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에스퍼 국방장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협상결과 보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제안을 거절하며, 한국이 큰 비율을 부담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하여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11차 한미 SMA 협상에 초점을 맞춰 현재까지 진행 경과를 추적하고 한미의 핵심 쟁점을 분석한 후 전망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위비 분담은 협상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특히 11차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이므로 구체 사안의 확인이 더욱 어려워 분석 수준과 정확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 SMA 협상 경과

한미 방위비 SMA는 1991년부터 시작되어 2019년 10차까지 이어졌다. 기본적으로 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한국 정부가 보존하는 형태로 지난 10차 SMA는 9차에 비해 8.3% 인상된 1조 389억으로 체결되었다.

이번 11차 SMA는 여러 측면에서 이전의 협상과는 다른 차원이 있다. 8차, 9차의 5년 협정과는 달리 미 백악관의 요구로 10차 SMA는 2019년 한 해만 유효한 단 년으로 체결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동맹국의 대폭 확대된 비용 및 책임 분담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후 미국은 전세계 동맹국을 상대로 새로운 비용분담 방식 채택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검토의 기준, 수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군이 특정 국가에 주둔할 때 발생하는 비용인 '주둔' 비용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책정했던 이전의 기준에서 벗어나 미국이 세계안보에 제공하는 공공재를 포함한 '동맹기여' 비용으로 확장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보·경제적 편익까지도 고려하여 동맹국들이 미국의 '공헌'에 보상을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 주둔비용의 개념도 확대하여 직접 비용 외에도 순환전력과 장비 배치 비용, 연합훈련 비용,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도 포함하여 비용 산정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대폭 증액된 50억 달러를 총비용으로 산정하고 2019년 7월 23~24일 방한한 존 볼튼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새로운 지침을 한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협상이 시작되면서 한미 양국의 입장 차가 본격적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은 기존 SCM 틀에서 방위비 분담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며,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SCM에 포함된 주한미군 인건비, 군수지원, 군사건설비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의 분담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기존 분담금이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국이 사용하는 전체 비용의 일부만을 반영한 것이라면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미는 그동안 1차 회의를 2019년 9월 24~25일 서울, 2차 회의는 10월 23~24일 하와이 호놀룰루, 3차 회의는 11월 18~19일 서울, 4차 회의는 12월 3~4일 워싱턴 DC, 5차 회의는 12월 17~18일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3차 협상은 예정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파행되었다. 2020년 1월 14~15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6차 협상에서는 이전 한미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는 상황도 감지되었다. 6차 협상 이후 한미는 3월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협상을 개최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이 대폭 반영되어 총액은 작년 기준 '10%+α(알파)' 증액, 5년의 다년 협상, SMA 투명성 확보 조치 등이 합의되었다는 타결설이 유보되었다. 그러나 미 국무부 정치·군사문제 담당 차관보는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 "협상은 공정한 합의여야 한다"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음을 알렸다. 상황을 종합하면 한국의 입장이 상당 수준 반영된 한미 실무선에서는 합의안이 마련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재가를 하지 않아 협상은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핵심적인 총액에서 합의가 틀어졌고, 한국의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에 한국의 새로운 안이 제시되어야 협상의 진척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 한미 간 쟁점 사항

## 미국의 협상 기본 원칙

미국은 세계검토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비용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과 관련한 큰 틀의 원칙은 첫째, 현 SMA에 국한하지 않은 확대된 비용 부담을 원한다. 미국은 한국이 SMA와 비 SMA 차원에서 "상당 수준의 자원"을 제공하나 "공정한 분담을 위해" 한국이 더욱 크게 이바지

## 방위비 분담 협상은 양날의 칼, 상황 관리에 최선 다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동맹국 안보공약 준수를 위한 지구 차원의 군사 능력 유지비용을 동맹국과 우호국이 부담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준수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구 차원에 미군을 배치한다면 이러한 비용은 미국 납세자만 부담해서는 안 되고 미국의 동맹국과 우호국이 공평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한국의 협상 기본 원칙과 SMA 개정 필요성

미국의 새로운 지침에 대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방위비를 공평하게 분담" 하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지난 10차 SMA 때부터 새로운 항목을 포함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을 담으려 했다. 결국 기존의 SMA 협정 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은 SOFA를 체결하는데, 한미가 합의한 1966년 SOFA 5조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하여 한국은 시설·구역을 제공하고 미국은 주둔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한미는 1991년 SMA를 체결하여 예외가 가능하게 되어있다. SOFA 5조에 대한 예외조항(특별조치)을 둘 수 있는 특별법 형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한미가 합의하면 예외조항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한미가 SOFA를 개정하여 SMA 틀을 변경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

2020년 4월 1일부로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중 미군의 생명과 안전, 보건 및 군 대비태세 관련 분야의 필수 인력을 선별하여 전체 인원 8,500명 중 4,000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7차 협상까지 주한 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떼어내어 우선 해결하자고 주장하였으나 미국의 거부로 불발되었다. 한국의 제안은 10차 SMA 수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하고 한미 교환 각서를 통해 체결한 후 이후 최종 합의가 도출되면 이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전체 분담금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항목인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만을 우선 합의한다면 향후 협상에서 한국은 '버티기'로 나올 수 있으므로 미국의 협상력이 극히 저하됨을 우려했을 것이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휴직 문제가 불거지자 일각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처럼 한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파견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 협상 타결 방안(전문가 의견)

4월말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4월 1일부로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과 SMA에 포함된 군사건설과 군수지원 분야도 영향을 받고 있다. 7차 협상까지 한미 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으나, 여러 보도를 통해 미국은 약 40억 달러를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10% 내외의 인상률과 동맹기여 차원에서 미국산 무기구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주한미군 기지 환경 정화 비용 부담 등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미국은 방위비 분담을 '경제 민족주의'로 확장하여 동맹국의 대미무역과도 연계하므로 관련한 한국 정부의 방침도 전달됐을 수 있다. 보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협상단의 안을 거부한 것이 맞다면, 협상은 일단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협상 방안을 살펴보면 첫 번째 방안으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주장한 현재와 같은 총액제 협상보다는 비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국내 발생 비용을 중국적으로 한국이 100% 부담한다는 원칙에 합의하는 방식"이다.

이 접근의 장점은 우선 분담률 100% 달성을 위한 기준이 되는 공식 문서의 수치가 24억 2천만 달러이므로 미국이 40억 달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식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한국으로서 미국이 발표한 수치를 기준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므로 정당성 확보에 유리하다. 미국이 지급과 같이 새로운 기준을 밝히지 않는다면 미국이 주장하는 40억 달러가 아닌 절반가량으로 축소된 24억 2천만 달러를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 협상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동 안의 문제점은 전례 없이 높은 인상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NPC 100%를 충족하면 향후 협상에서 갈등의 여지를 줄이고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마련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두 배 이상의 인상은 국내 여론상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10차 협정을 1년 연장하는 것이다. 10차 협정에 따르면 한미가 총액 인상분을 합의하면 협정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미 1/4 분기가 지난 시점이므로 1년 연장에 합의한 후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지속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

정부 관계자들은 1년 연장안이 11월 미 대선 이후에 합의가 도출되는 형태이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감정적인 거부 반응을 보인다.

세 번째 방안으로 50% 인상을 검토해 볼 수 있다. 1조 389억 원에서 50% 인상한 1조 5천억 원 수준이다. 이 안의 장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수용 가능성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에 활용하기 위해 50%, 혹은 2~3배와 같은 상징적 인상률을 원하므로 최소 수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협상 차원에서 볼 때 미국이 수용한다면 최초 요구로 알려진 50억 달러에서 대폭 삭감된 것이다.

네 번째 방안으로는 새로운 협상 틀을 재설정하여 협상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협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함으로써 새로운 협상의 틀로 협상에 임하는 안이다.

위의 네 가지 방안은 모두 장단점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최선은 10%+α(알파) 인상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체성으로 볼 때 미국의 수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장단점을 비교하여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 협상 미 타결 상황이 길어질수록 한미동맹의 대비태세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신속한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

## 우리의 대응 방향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 협상은 양날의 칼과 같다. 미국의 요구를 많이 반영하면 국내 반발이 커지고, 반대로 국내 여론을 따라가면 미국과의 타협이 어려워진다. 정부로서는 상반된 의견을 가진 두 행위자를 동시에 설득해야 하는 고난도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미 7차례의 협상으로 한미는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았다고 볼 수 있다. 11월 대선과 코로나 19 등으로 분주하지만, 방위비 분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므로 우선 관심 사안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을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흔들 수 있는 주한미군과 연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주둔국에서 충분한 비용을 낼 경우에만 방위공약을 준수할 수 있다는 인식도 지속적으로 표출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한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못한다면 주한미군의 전면적 철수는 아니더라도 일부 조정과 역할 변경 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연동되는 것이다. 트럼프는 미북 대화가 재개되고 북한이 핵탄두 1~2개 정도를 '보여주기' 식으로 폐기한다면 대선전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므로 상응 조치도 제공할 수 있다. 상응 조치로서 북한이 원하는 경제제재 해제는 미 의회의 소관이므로 쉽지 않으나,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주한미군과 같은 동맹 관련 의제를 통해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

국내 설득을 위해서는 방위비 분담 협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11차 SMA 협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이 요구하는 급격한 인상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도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인상 기준, 내역, 액수 등을 공개하여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총액제에 의한 협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사업내역·항목별 소요비용"(PBC) 분담 방식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이미 10차 SMA 이래 미국이 '대비태세' 항목으로 주둔비용을 넘어서 요구를 하고 있고,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통합되므로 한국에 부담이 되는 신규 수요가 줄어든 상황 등을 참작할 때 PBC 방식의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

결론적으로 11차 SMA 협상은 1991년 1차 협상 이후 가장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검토를 마치고 처음으로 적용하는 사례이므로 더욱 힘든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협상을 성공시켜 내년 3월 종결되는 미일 SMA에 활용하고, 연이어 다른 국가에도 적용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미타결 상황이 길어질수록 한미동맹 대비태세 약화는 불가피하다. 북한이 다시금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지도 점차 좁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거액의 증액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도 없다. 이번 기회에 한미 양국은 기존의 협상 방식을 전환하여 방위비 분담 내역, 산정 기준 등의 기본적 요소를 담아 투명성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분담률을 책정해야 한다.

## 【참고자료】

제11차 한미방위비 분담협정 협상: 경과, 쟁점, 전망과 대응, 아산정책연구원, 2020. 4. 9

※본 안보정세 분석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